

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

한농연-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10월중 개장 추진

- 대형유통업체 휴업일에 대형마트 앞 주차장에서 한농연 주관으로 6개소 직거래장터(시범사업) 개설 추진
 - 한농연중앙연합회는 10월중 농식품부 및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휴업일에 마트 앞 주차장에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을 추진중임
 - 1차 조사 결과 16개 시·군·구가 직거래장터 개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농연과 농식품부는 이 중 6개를 선정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 뒤 향후 성과를 보고 확대하겠다는 방침임.
 - 현재 한농연(사업관리실)은 농식품부 및 대형유통업체, 지자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직거래장터의 개설을 위해 노력중임
 - 문의 : 한농연 사업관리실 송기호 실장(02-3401-6543)

한농연 및 지역 농업 관련 소식

-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 공청회 개최...“사회보험”으로 도입해야
 - 9월 4일 aT센터에서 열린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 공청회에서 농식품부(전한영 재해보험팀장)는 현재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을 국가 정책보험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운영방식은 기존 민간보험협용체계를 원용해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보장수준은 급격한 재정부담이 없도록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함
 - 이에 한농연(박상희 정책실장) 등 농업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은 산재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사회보험으로 추진하고 사회보험의 성격상 보장보다는 안전재해보상법이 맞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의 농업정책보험만 전담하는 기관 설치와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 농업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금 납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
- 한농연안성시연합회, 안성시 로컬푸드 사업에 적극 참여
 - 한농연안성시연합회(회장 김경돈)는 관내 5개 농업인단체(한여농,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가농, 전농)와 함께 “안성마춤 로컬푸드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원주 새벽시장(한농연원주시연합회가 처음 시작)을 벤치마킹하여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성새벽직거래장터”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상행)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새롭게 재개장하여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었으며, △안성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코너로 오픈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안성시청(시장 황은성) 또한 로컬푸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어 위와 같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음

- △안성시 현수동 등지에 2개소의 지역 공동체 텃밭을 마련하여 1계약 당 10㎡(2만원)씩 총 373 계약의 텃밭을 시민에게 분양하였으며, 지역 농업인들이 현장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있음
- 아울러 △위에 언급한 안성새벽직거래장터(안성천 아양주공아파트 단지 옆)를 열어 매일 오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206농가 등록·참여, 주말 하루 매출 1천만원 수준, 3개월간 매출 누적액은 3억원)
- △기존 농협 하나로마트 직매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얼굴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음

○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제9회 도농어울림한마당 개최

-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전창재)는 전북 농특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홍보·판매기 위한 ‘제9회 도농어울림한마당 잔치’를 6~9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현대아파트 분수대 일원에서 개최
-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내 농업경영인들이 생산한 햅쌀·배·복숭아·사과 등 농산물을 직접 판매. 또 도내 14개 시군연합회는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전북 명품 농특축산물을 홍보·전시하는 등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에 주력

○ 농식품부 직거래 콘테스트 결과, 11개소 우수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 콘테스트’를 개최한 결과, 총 11개소의 우수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발표
-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71개 직거래 사업자가 콘테스트에 참여하여, 전문가들의 3단계에 걸친 엄격한 평가(서류→현장→공개발표)를 거친 후 총 11개의 우수 사업자가 선정
-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매장 분야에서는 완주군 용진농협이 ‘최우수’, 완주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우수’를 차지
- 꾸러미 분야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운영중인 ‘언니네 텃밭’이 최우수 사업자,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와 ‘완주 로컬푸드 건강한 밥상 영농조합법인’이 우수 사업자로 선정
- 직거래 장터는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금요직거래장터’가 최우수, 익산시의 ‘토요어울림장터’가 우수 사업자로 선정. 구미시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
- 온라인 직거래는 블루베리 등의 베리류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베리팜 영농조합법인’이 온라인 직거래 분야의 우수사업자로 선정
- 한편, 우수 사업자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북이 5개소로 가장 많아 직거래·로컬푸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